

# 다산포럼

박호성



이렇게 오랫동안 타오르는 촛불을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100만이 운집한 촛불 시위 후에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국민을 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가. 지도부도 없는데 벌써 40여일을 이처럼 감동적으로 촛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모차에 컨테이너로 맞섬으로써 세계인의 조롱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말해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 자체의 위기다.

첫째,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복지 함양은 가장 기본적인 통치 목표다. 따라서 국민이 안심하고 먹고 살면서

만적인 현실에 대해 분노의 함성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적 염원을 제도적으로 옹호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의회란 국민의 안전 및 복지 구축을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적 제도 장치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적인 의회 정치가 요구되어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를 앞장서 주도해야 할 여권은 국면과 합의나 국민적 동의의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만 진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한 '정치(?)'는 요컨대 야당 스스로 국민들의 불만을 앞장서 치유할 능력이 없을 실패하고 공인하는 행위, 그 자체인 것이다.

다른 목을 축이기 위해 손톱으로라도 새를 파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 이 새물을 파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든 시민들을 불비이라 또 매도한다. 지금 정부 여당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대신, 모래를 뿌리는 것처럼 보인다.

특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당선인답게 이명박 대통령은 신의보다는 출세지상주의를 호도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사랑의 힘이 아니라 힘을 사랑하는 경영인이나 행정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 대통령이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우선 촛불을 꺼 것이다. 운집한 촛불 시위 군중 틈에 끼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할 것이다. 나는 촛불을 들고 등단한다. 그리고 외칠 것이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쇠고기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운하 구상도 내팽개치고자 한다. 나의 이러한 의도를 명백히 하기 위해, 곧 거국내각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제 나를 믿어 달라!" 한여울 밤의 꿈

〈서경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토대와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정부의 기본 임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나 대운하 구상 등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임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병든 소 강제 급식 조치'에 저항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롭게 촛불을 밝히고 있다. 우리 국민은 평화롭게 '자유'를 한껏 즐길 수도 없고 '건강한 빵' 또한 마음껏 먹을 수도 없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정치인을 대신해 몸소 나서서 굴욕적 한미쇠고기 협상을 규탄하고, 절

과적으로 여권이 조성해낸 이러한 위화감 앞에서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총체적 삶을 파괴하려 한다고 믿는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국정파탄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건강 주권까지 미국에 팔아치웠다고 항의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 대통령과 그 자신이 손수 골라 뽑은 '강부자 내각', 그리고 그의 거수기에 불과한 한나라당과 총신 '조중동'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야당은 자신들의 운동장인 국회 가 아니라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의 촛불시위 대행업체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

## 시설

### '파업대란'으로 총체적 난국 맞은 경제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노조가 어제 새벽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고유가 등으로 가격이 비싼 기름을 경계연속 속에 올린 데 맞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치권은 18대 국회 분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간 우리 경제가 주저앉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국내 산업계는 '릴레이 파업'으로 거의 마비될 지경이다. 지난 13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신호탄으로 16일 건설기계노조 파업이 시작됐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물류마비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중장비를 가동해야 하는 건설현장도 '올 스톱'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대운하노조, 철도·공항공항노조 등도 이날 하순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열 것이라고 한다. 한국사회 전체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화물연대 파업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광양항과 부산항의 부두 기능이 마비돼 수출입 차질액만도 47억3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물류 마비에 따른 공장 가동중단 등 2차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고유가 등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부가 쇠고기 줄속 협상으로 비롯된 '촛불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쇄신안이 늦어지면서 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신뢰를 잃은 정부는 생계형 파업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이 대통령은 인적쇄신과 국정 시스템 정비 등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수습할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파업이 계속되고 민심이 불안하면 우리 경제는 정말 회복되기 어려운 구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물가지표 '비상'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각종 물가지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지난달 원재료 물가는 원유와 고철 등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1년 전에 비해 79.8%나 올랐다. 이같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원재료물가는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로 시차를 두고 최종재 물가에 반영된다. 수입물가도 지난달 10여년만에 최고 수준인 44.6% 폭등했다. 이에 따라 6월 소비자물가는 5%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행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는 5.3~5.8%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진입하면 2001년 6월 5.0% 이후 처음이다. 물가관리 목표치를 3.5%로 잡고 있는 현실에서 천정부지 물가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재다. 물가가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다시 물가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문제는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물가관리 당국인 한국은행도 물가가 언제 잡힐 것인지 자신있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태 총재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하지 않으면 연말에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동향이 예상을 벗어 나고 있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한다.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며 8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물가 상승이 소비와 투자 위축을 부르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에서 '안정'으로 전환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 없이는 경제가 안정될 수 없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無等鼓

한국은 물론 선진국을 비롯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예초 전망치보다 내려 잡고 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고공행진으로 각종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경제성장이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때 패권을 벌고 있는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적 불황의 와중에 산유국도 아니며 유일하게 밝은 햇빛을 전망하는 나라도 있다. 바로 대만이다. 대만 정부는 중국과 경제협력으로 인한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을 예초 목표치인 4.8%에서 5.0%로 높여 잡았다.

대만은 최근 중국과 직통(直通), 직교역(通商), 서신량래(通郵) 등에 합의, 삼통(三通) 시대를 열었다. 1949년 대만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무려 59년 만에 양국 간 경제교류의 물꼬를 텄다. 대만 정부는 벌써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를 푸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에 밀려 침체에 빠진 IT업체 사장들은 본토 진출의 꿈에 부풀

어 있다. 그런데 갑작스런 양국간의 해빙으로 근경에 처한 대만인들이 많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업자 중국을 왕래하면서 현지처를 두고 살림을 차린 기업인들이 장본인들이다. 양국의 통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대만 본처들의 중국 나들이가 쉬워졌고, 따라서 수시로 드나들며 남편을 감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이다. 지금 그들이 현지 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대만의 여성단체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중국 현지처 문제는 십 수년 전부터 생긴 사회적 현상으로 대만에는 본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처클럽이 결성돼 있을 정도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숫자는 물론 사태의 심각성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다음달 4일부터 대만인들이 주말 36편의 항공기로 중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는데 그 속에 본처들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 그녀들의 보복은 어떤 것일지 짐작만 해본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 '본처클럽'



## 기고

김재원



모내기가 한창이 남도 들녘에 여름 철새들이 부쩍 늘었다. 쇠백로와 황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 여름 철새가 남도 들녘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은 전남도의 친환경 농업 면적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업으로 생태계 회생이 폭넓게 진행되면서 지렁이와 땅강아지, 미꾸라지 등의 개체수가 늘어 여름 철새들에게 먹이감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하는 것은 물론 철새들의 서식환경까지 바꾼 셈이다. 들녘의 여름철새는 도시민들에게도 색다른 풍경으로 다가간다. 전남이 친환경 농업지역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준다. 친환경농업 체류에 따라 없다. 초록의 옷으로 갈아입은 산야도 남도를 찾은 이들의 마음까지 초록으로 물들게 해주고 있다.

지난 2004년 전남도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1.3%인 4천ha에 불과했다. 그러나 박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농업을 도정의 역점시책으

### 남도 생태계는 살아 있다

용리를 비롯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무안군 해지면 산갈리,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로 펼치면서 인증면적이 급증했다. 불과 3년 사이에 전체 경지면적의 21%인 6만5천619ha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의 절반을 웃도는 53.4%에 이른다. '2008친환경 경영평가'에서 전남도가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전남도는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의 4차년도인 올해에도 휴 살리기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유기농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경지면적의 25%수준인 7만9천ha까지 인증면적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30%인 9만8000ha까지 확대한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된 친환경 농업이 자연생태계까지 살리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녹색의 땅' 전남들녘의 요즘 풍경이다.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 호랑이 키우기



그 무서운 호랑이를 사람이 키우다니? 모두 깜짝 놀랄 것이다. 하지만 난 키우고 있다. 그리고 하나도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큰 고양이 정도의 작은 새끼 호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새끼라지만 이 녀석은 호랑이로서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다. 굳세고 튼튼한 앞다리(호랑이는 앞다리가 더 크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발톱에 의해 이미 내 손등은 상처가 투성이다). 한 달이 지난 이제는 이빨마저 나기 시작해 뒷발이 다 훼손될 지경이다.

앞 이빨이 나면 이유식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 내일부터는 날고기를 갈아 먹이기 시작해야겠다. 과연 잘 먹어줄까, 탈은 나지 않을까? 먹이를 바꿀 때마다 며칠씩은 이런 근심 속에 보낸다. 일단 날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면 일주일

안에 우유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계산해 보니 한 달 우유값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갔다. 호랑이 분유는 특수해서 값이 무척 비싸다.

이 녀석, '소망이'는 땀방울이 어머니가 낳은 새끼 호랑이 3마리 중 한 마리다. 요즘 광주에 소망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 그 소망을 비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기로 시작했다.

원래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기는 게 정상이지만, 체 이틀도 안돼 두 마리가 영달아 죽는 통에 할 수없이 사람 손으로 키우게 된 것이다. 처음 우려와 달리 무럭무럭 자라주는 녀석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소망이의 성장과 더불어 광주의 소망도 함께 착실히 무르익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 콜택시, 5분이상 기다렸다고 요금 더 받아서야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로 인해 일반 택시를 타는 게 무서워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콜택시를 불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같은 거리인데도 요금이 1천~2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의아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그 후 다른 콜택시를 타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콜택시는 승객을 만나기로 한 곳에 도착한 뒤 5분이 지나면 승객이 오지 않으면 미터기를 누른다는 것이다. 콜택시를 부를 때 수수료 1천원을 때는 데도 불구하고 대

기 시간이 길어졌다며 승객이 타지도 않았는데 미터기를 누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미터기 운운하며 요금 시비하기도 낮 뜨거워 그냥 참고 만다.

사실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기가 눈치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내돈 다 주고 타는 건데도 그러나 기사방식에 얽은 기분이나 이게 옳은 일인가.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 택시 타기를 꺼리는 여성이 급증했다. 택시업계는 이럴 때일수록 서비스 정신을 더 발휘했으면 한다.

▲노성욱·광주시 서구 농성2동

### 주유소 가격 비교 사이트 실제 가격과 차이... 소비자 혼란

기름값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불가피하게 차를 운행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셀러리멘들은 이 때문에 살림살이가 힘겹다.

그러서 주요소 기름가격 비교 사이트가 인가다. 한푼이라도 기름값을 아껴려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들 물어본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았지만 실제 가격은 인터넷에 공개된 가격보다 비쌌다. 동네 주유소와 별 차이가 없었다. 주유소를 찾아 이동한 기름값 때문에 오

히려 손해를 본 셈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실시간 기름값 정보가 대부분 카드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전송되는데 기름을 구입한 고객이 할인 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실제보다싼 가격이 등록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름값 공개 사이트 운영상의 허점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가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소비자들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하게 안내하기를 바란다.

▲유진규·여주시 신덕동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 제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 회 1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